

KEPCO E&C family

KEPCO Engineering & Construction

VOL. 494 | 05+06 | 2026

KEPCO E&C Family

2026 MAY & JUN VOL. 494

KEPCO E&C



Contents

May+June
Vol. 494



04
생각의 틈
하루의 끝에서
시작되는 시간

06
한기 생각
퇴근 후에 만나는
또 다른 나

08
추억의 보물찾기
알록달록 물들인 어린이날의 추억

14
한기 사 노트
나의 첫 한전기술 이야기
취업부터 업무까지 한전기술 A to Z

18
취미 연구소
손으로 빚고
눈으로 먹는 달콤함
화과자 클래스



22
테크니가 쓴다
오늘의 호도 요정
테크니 꽃 배달 왔어요

26
E&C ON
에너지 전환의 해법을 찾다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28
기렸습니다
귀여운 것이 세상을 구한다
- 엔지니어링솔루션본부 환경기술실 황유림 주임

32
여기서 행복
골목골목 걸을수록 좋은
공주

38
친절한 AI
우리 가족 소중한 추억,
AI로 더 특별하게



KEPCO
ENGINEERING & CONSTRUCTION

40
초록 한 걸음
이동을 바꾸면
일상이 달라진다

42
트렌드 읽기
청년들의
핫플레이스가 된 산



44
E&C 뉴스

46
독자 이벤트
컬러링 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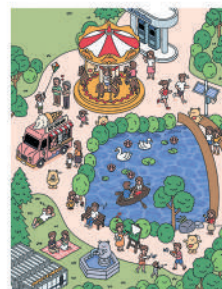
47
참여 안내 & 한전기술 SNS

통 권 494호
발행인 김태균
발행일 2026년 5월 29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울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기획·디자인 경성문화사(02-786-2999)



08

COVER STORY
일상 너머



자연의 푸른 변화가 유독 반가운 계절입니다. <KEPCO E&C Family> 이번 호는 회사 밖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한전기술의 노하우가 담긴 수소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이들 사이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한전기술 마스코트 '테크니'도 찾아보세요.



22



32

하루의 끝에서

시작되는 시간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익숙한 자리와 익숙한 역할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 하루를 채워 간다. 그리고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 명함 속 직함도, 모니터 앞의 진지한 표정도 잠시 내려놓는다. 문밖을 나서는 그 짧은 사이 나는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며, 또 그냥 '나'가 된다.

우리는 종종 일하는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한다. 성과와 역할로 스스로를 정의하고 바쁨을 성실함의 훈장처럼 달곤 한다. 그러나 진짜 나는 퇴근길 이어폰 속에 흘러나오는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릴 때, 아이의 애교에 피식 웃을 때, 주말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불쑥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 무게중심을 이루며 단단히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닐는지.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곳, 집에서는 잘해야 한다는 압박도, 보여줘야 한다는 긴장도 필요치 않다. 그 안에서 우리는 충전되고 다시금 세상과 마주할 힘을 얻는다. 정해진 역할에서 벗어나 가장 나다운 하루를 보내는 일,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나답게 살아가는 방식을 익혀간다. [esac](#)

퇴근 후에 만나는 또 다른 나

직장인의 체력은 국력! 운동

유튜브와 미드 정주행

퇴근 후 주로 하는 것은?

멍때리기

맛있는 저녁을 먹기 위한 요리

집으로의 출근 (Feat. 육아)

밀린 집안일과 휴식

하루 대부분을 일과 함께 보내는 우리에게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은 어쩌면 퇴근 이후에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익숙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확장해 가는 소중한 시간. 한전기술 임직원들이 일상 너머 각자의 저녁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들려줬다.

Text 편집실



전 세계를 누비며 삶의 새로운 스펙트럼을 채워 나가는 에너지 탐험가



변신 히어로. 아빠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루틴쟁이입니다. 퇴근 후에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생활하거든요.

회사 밖 '진짜 내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매일 나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내가 바로 최강록 셰프다!

신출귀몰 무엇이든 똑딱 만들어 내는 도깨비



늘 잠이 부족한 나는야 잠자는 숲속의 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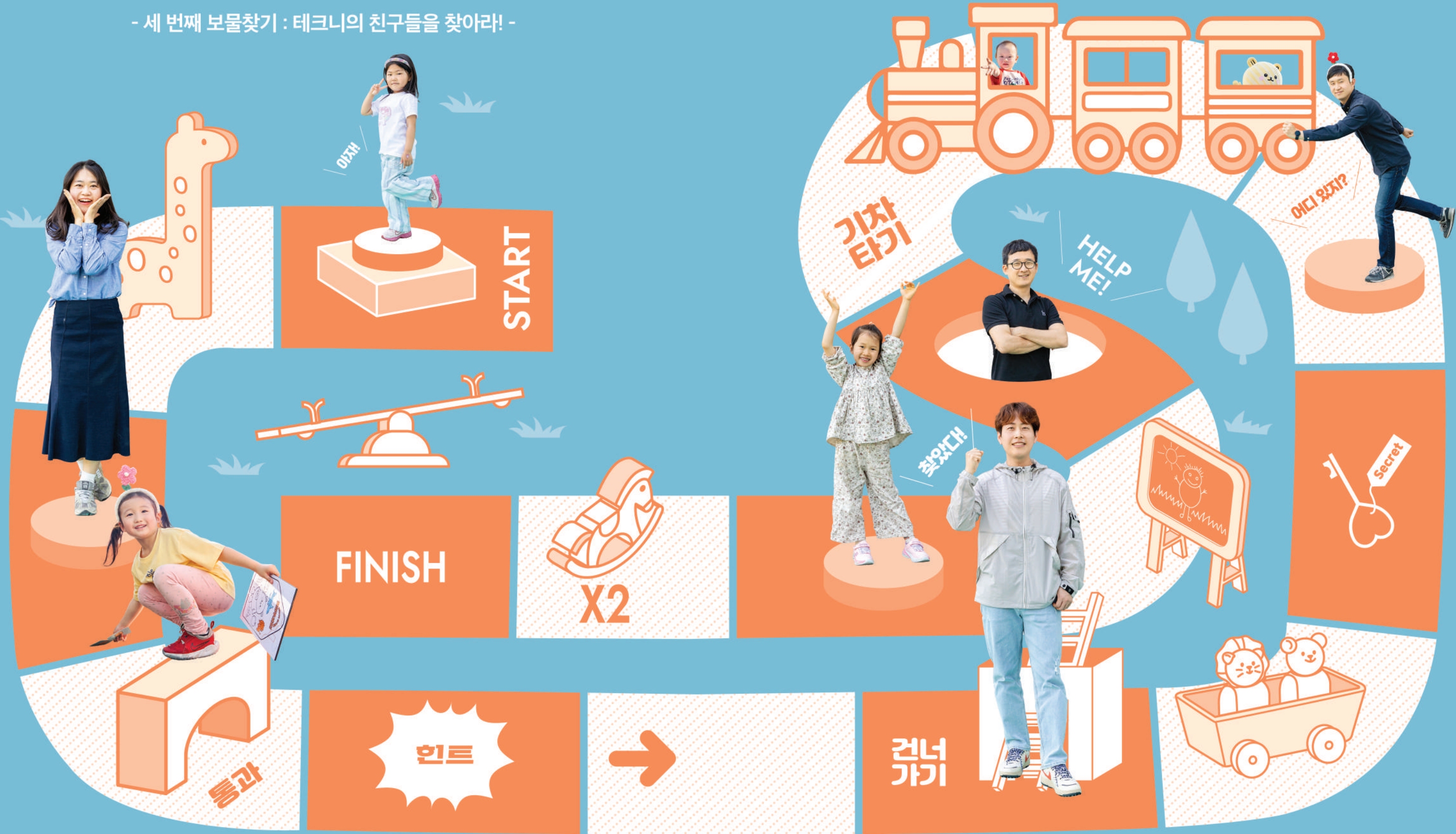
알록달록 물들이

어린이날의 추억

- 세 번째 보물찾기 : 테크니의 친구들을 찾아라! -

어디선가 들려오는 환한 웃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도착한 곳은 '추억의 보물찾기'가 열린 한전기술 사내 어린이집.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된 이번 이벤트는 임직원에게는 회사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자녀에게는 배움터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Text 김지민 Photo 고인순, 조병우



ST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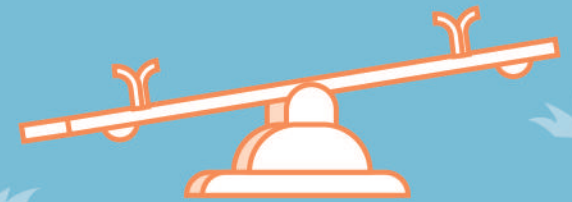
기차 타기



HELP ME!



어디 왔지?



FINISH



X2



찾았다!



Secret



통과



힌트



건너가기



다정한 마음이 모여
완성된 이틀간의
시간이 어린이날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완성했다.

이동하기



12



GO



어린이집을 찾은 특별한 손님

'추억의 보물찾기' 행사의 따뜻한 분위기는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한전기술 김태균 사장이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낸 것. 김태균 사장은 아이들에게 쿠키를 선물하며 한 명 한 명 눈을 맞춰 인사를 나눴고, 아이들도 밝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환하게 웃었다.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선물이 현장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한국전력기술 사장님께'라는 제목의 롤링 페이퍼와 함께 카네이션을 김태균 사장에게 전달했다. 고사리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와 알록달록한 그림에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카네이션을 받아 든 김태균 사장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라"며 따뜻한 덕담을 건넸다.

전날 진행된 '추억의 보물찾기'와 이날 아이들이 직접 전한 편지와 카네이션, 서로를 향한 감사 인사가 오간 풍경까지, 따뜻한 분위기가 어린이집을 가득 채웠다. 아이들의 웃음과 작은 손길, 서로를 향한 다정한 마음이 모여 완성된 이틀간의 시간이 어린이날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완성했다. E&C

사랑합니다♥



Mini Interview

아빠와 아이가 함께한 웃음 가득 어린이날



기획관리본부 상생노무처
김재학 차장 & 조안

아이가 평소에도 색칠 놀이를 좋아해요. 색칠하면서 보물찾기까지 하니까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로 딸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조안아, 정말 사랑하고,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엔지니어링솔루션본부 기계기술실
주종환 차장 & 하운

딸아이와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참여했는데, 날씨가 더웠지만 처음 해보는 놀이였고 아이도 즐거워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딸도 오늘 재미있었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하운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원자력사업본부 건설사업처
김재현 차장 & 소울

딸 소울이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보물찾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즐거웠습니다. 가족에게 바라는 점은 건강과 행복뿐입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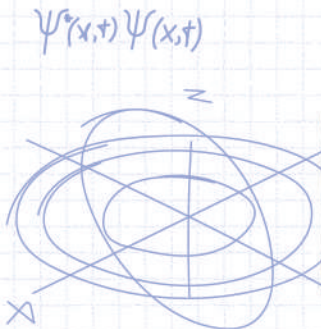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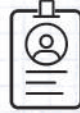
13

나의 첫 한전기술 이야기 취업부터 업무까지 한전기술 A to Z

Text 각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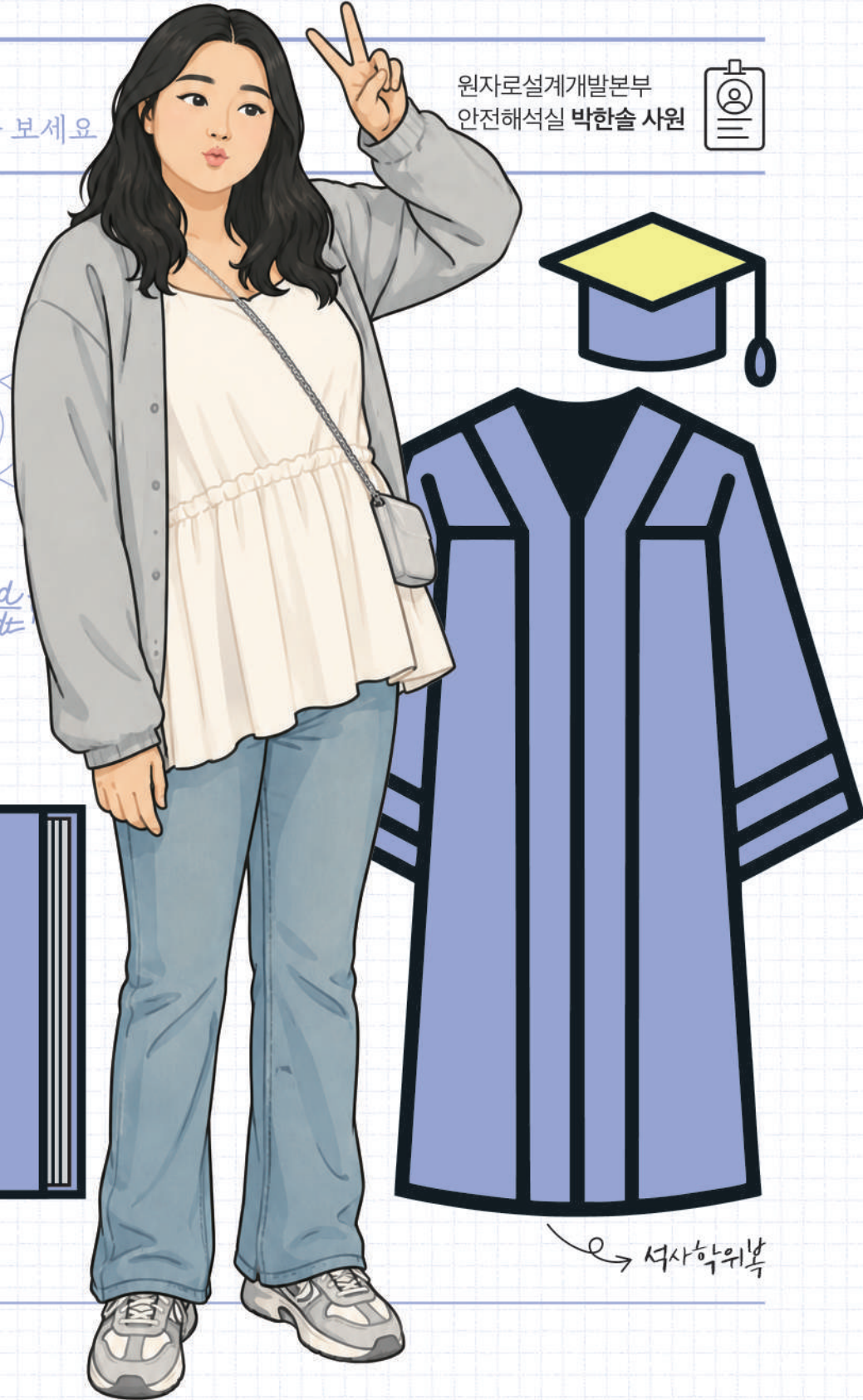
고민보다 GO!
작은 경험부터 쌓아 보세요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안전해석실 박한솔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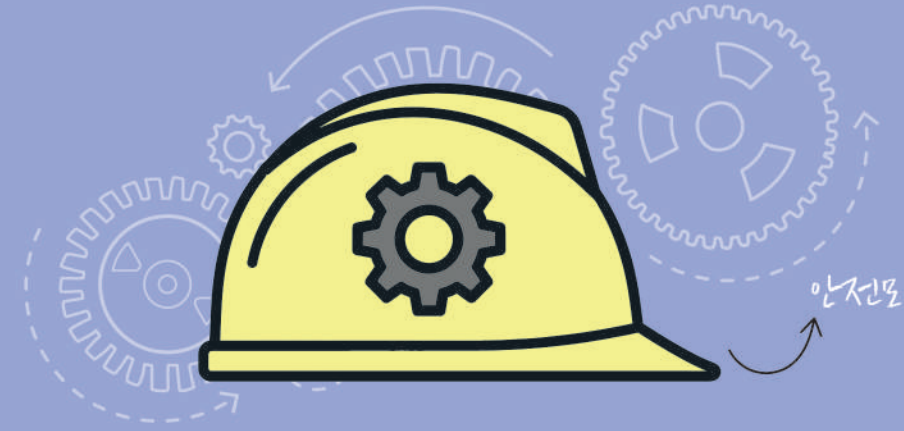
$$H(t)|\psi(t)\rangle = i\hbar \frac{d}{dt} |\psi(t)\rangle$$

논문



석사학위

HOW ABOUT ME?



안전모

저는요

2025년 하반기 입사.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안전해석실에서 발전소 성능해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발전소의 주요 운전 변수와 계통 성능을 분석해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안전해석실은 이런 일을 해요

원자로발전소가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설계 및 운전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부서입니다. 실제 발전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컴퓨터 모델로 구현하고 온도, 압력, 유량과 같은 주요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하고 검토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계통이 설계 목적에 맞게 기능하는지, 안전계통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한전기술 입사 계기는요

대학원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한전기술과 함께하는 다양한 정부연구과제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임직원분들의 전문성과 실무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보고 한전기술이 축적해 온 기술력과 전문성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가진 전공 지식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스럽게 입사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한전기술 취업 이렇게 준비했어요

원자력공학 전공으로 석사 과정에 진학해 여러 학회에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논문을 작성한 경험들이 발표 면접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회사와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많은 공을 들였어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을 제가 지원한 직무와 연결해 보고, 면접에서도 그 점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한전기술에서 이런 목표를 꿈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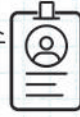
제가 속한 분야의 깊이를 이해하고 맡은 바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 후에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토대로 더 넓은 무대인 해외 원전 사업에도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다방면으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한기인이 되고 싶습니다.

미래의 한전기술 후배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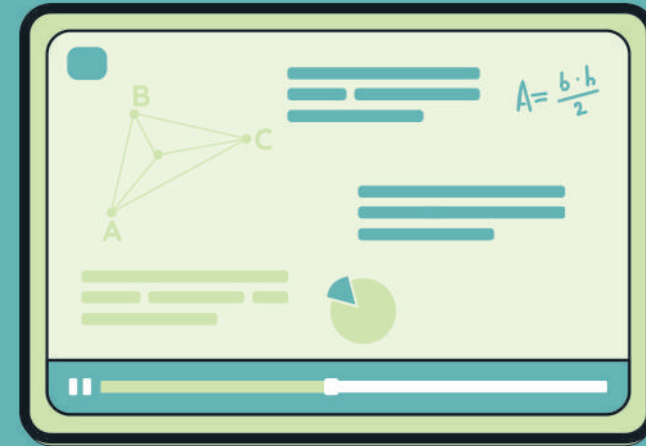
저 역시 막막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고민할 시간에 일단 뭐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며 작은 경험이라도 쌓기 위해 노력했어요. 너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일단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자신만의 경험을 하나씩 쌓다 보면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강점이 되고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힘이 될 거예요.

한전기술 이직 비결은
차가운 분석과 뜨거운 열정

전력기술연구원 원전안전기술연구소
김기배 주임



HOW ABOUT ME?



동영상
강의

저는요

2025년 하반기 입사. 전력기술연구원 원전안전기술연구소 구조내진연구팀에서 차세대 원전인 SMR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조내진연구팀은 이런 부서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SMR의 구조설계를 수행합니다. 구조설계란 구조물에 작용하는 다양한 하중에 대해 구조물의 거동과 응답을 파악해 안전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저희 팀은 필수적인 내용만 일목요연하게 회의를 진행하며 기한 내 업무만 완료하면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등 매우 효율적인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한전기술 취업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전 회사에서 유사한 업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더 확장하고 싶어 1년 정도 한전기술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평일에는 업무 외 시간에 1-2시간씩 영어, NCS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독서실을 이용했습니다. 경력직 및 연구직의 필수 요건이었던 포트폴리오를 직무기술서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작성하는 과정도 필요했구요. 이미 10년간 직장생활을 해온 터라 이력서와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기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모의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한전기술 입사해 보니 이런 점이 좋아요

사기업과 공기업을 모두 다녀보며 느낀 점은 우리 회사의 교육과 업무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은 사업 품질을 위해 다양한 협업 프로세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SMR 구조설계도 처음 접해본 업무이기에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지만, 선배님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에서 이런 목표를 꿈꿔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자’라는 회사 사훈처럼 퇴직하는 날까지 공부를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단기적으로는 PE 자격증 취득을, 중장기적으로는 박사학위와 토목구조기술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의 한전기술 후배분들!

우수한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열정만큼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한전기술의 사업과 업무를 상세히 분석하다 보면 나와 매칭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다 보면 충분히 한기인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ESC**

동글동글 동물 화과자 만들기



평범한 전통 문양이 아닌 귀여운 동물 화과자를 만들 거예요.



먼저 만두 빚듯 앙금을 반죽으로 감싸줘요.

손으로 빚고
눈으로 먹는 달콤함

화과자 클래스



한전기술 동기 3인방이 격식 있는 선물로만 여겨졌던 화과자를 직접 손으로 빚어봤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공들인 시간만큼 귀여운 결과물이 완성됐다.

Text 김지연 Photo 고인순

집중 또 집중!



짠! 치즈를 매단 쥐가 완성됐어요.

우와!

섬세한 손길이 필요해서 조금 어려워요~

누가 누가 더 귀엽게 만들었나~



똑같은 거북이지만 생김새가 조금씩 달라요.

귀여워~

제 거북이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여섯 마리 동물 가족 완성



크흑!



제가 만든 화과자 정말 귀엽죠?

부드럽고 쫄득한 화과자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먹기 아까워서 어찌죠? ㅎㅎ





‘정성 100%, 귀여움 200%’ 동물 화과자

화과자는 찹쌀, 쌀, 밀가루, 설탕 등을 활용해 만드는 일본의 전통 과자다. 재료는 간단하지만 ‘화과자는 첫맛은 눈으로, 끝맛은 혀로 즐긴다’는 말이 있을 만큼 화려한 모양을 자랑한다. 격식 있는 자리에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일상에서 손쉽게 즐기기는 어려운 편인 화과자 만들기에 평소 색다른 체험을 즐기는 한전기술 동기 3인방이 도전했다.

“저희는 동기 중에서도 친한 사이로, 자주 이렇게 모여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셋 다 화과자는 물론이고 쿠킹클래스도 처음이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 의기투합하게 됐어요.”

이들이 만든 화과자는 여섯 가지 동물 모양이다. 색깔이 화려한 대신 모양이 단순한 경우가 보통이나, 화과자라는 낯선 디저트에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귀여운 동물 모양 만들기를 택했다.

처음으로 만든 것은 쥐 모양 화과자. 준비된 백앙금을 찹쌀 반죽으로 조심스럽게 감싼 후 쥐의 형상에 맞게 모양을 잡았다. 눈은 검은깨로, 수염은 이쭉시개로 그어 표현하고 이마 위에 구멍이 송송 난 에멘탈 치즈까지 얹어주면 완성이다.

평소 업무에서 발휘하던 세 사람의 꼼꼼함과 집중력이 화과자를 만들며 빛을 발했다. 모양이 조금만 원치 않게 나와도 처음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하고, 동물의 얼굴을 표현할 때는 숨죽여 한땀 한땀 그려 넣었다. 그렇게 완성된 동물은 쥐를 시작으로 문어, 거북이, 돼지, 양, 호랑이까지 총 여섯 마리. 마지막까지 집중의 끈을 놓지 않고 꼼꼼히 공들이던 참여자들은 완성작을 본 후에야 “너무 귀엽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화과자 만들기를 마친 세 사람은 완성된 작품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공들여 만든 여섯 마리의 동물 화과자가 예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 표정이었다.

“직접 만들어 보니 화과자가 왜 비싼지 알 것 같아요. 이 작은 것 하나에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이 귀한 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죠?(웃음)”

낯설게만 느껴졌던 화과자가 이날만큼은 세 사람에게 가장 친근한 디저트가 됐다. 비록 첫 도전이었지만, 손끝에서 탄생한 귀여운 결과물 앞에서 셋은 오래도록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달콤한 한입보다 더 달콤한 하루였다. **E&C**

Mini Interview

제가 만든 문어 화과자 어때요?

엔지니어링솔루션본부 플랜트설계기술실
김영년 주임

회사 밖에서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어 신선했고 친한 동기들과 함께 해서 더 재미있었어요.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손기술이 부족한 점은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든 건 문어 모양이에요.

난이도



새로운 재능을 찾은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솔루션본부 디지털엔지니어링실
김진하 주임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기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었어요. 하기 전엔 생각보다 어려워 보였고, 요리나 만들기 클래스를 해본 적 없는데 막상 만들다 보니 ‘나 재능 좀 있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난이도



동기들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지내자!

엔지니어링솔루션본부 토목건축기술처
임해평 주임

음식 만드는 클래스를 처음 해봐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쉽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호랑이를 제일 잘 만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하하. 오늘 함께한 동기들과는 입사 때부터 친한 사이인데요. 지금처럼 우정 변치 않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난이도



오늘의 효도 요정 테크니 꽃 배달 왔어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테크니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어버이날에 빠질 수 없는 카네이션! 테크니의 예쁜 꽃 선물에
활력도 얻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도 표현했던 그날의 현장을 만나본다.

Text 편집실 Photo 고인순, 조병우



효도까지 챙겨주는 테크니 최고!



우리 가족 사랑해♥



테크니가 준비한 가정의 달 이벤트

따뜻한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5월 초, 한전기술 사옥에 익숙한 노란 얼굴이 등장했다. 한전기술 마스코트 테크니! 이번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들이 가족과 부모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평소 쉽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카네이션 100송이를 준비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지나가던 임직원들 앞에 등장한 테크니의 모습이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만들어 냈다.

테크니를 발견한 임직원들은 “오늘 무슨 날이에요?”라며 반갑게 발걸음을 멈췄고, 테크니가 건네는 카네이션을 받아 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일부 임직원들은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전해 드리겠다고 “오늘 테크니 덕분에 효자 되겠네”라고 농담했다. 또 어떤 이는 꽃을 소중히 품에 안고 “이따 퇴근하면 부모님께 전화 좀 드려야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행사 한편에는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는 메시지 코너도 함께 마련됐다. 알록달록한 종이 위에 짧지만 진심 어린 문장들이 차곡차곡 채워졌다. 펜을 든 채 한참 고민하던 임직원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쑥스러워하며 ‘건강합시다’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다. 평소 오가던 업무 이야기 대신 이날은 임직원 모두가 가족을 떠올리며 함께 웃음꽃을 피웠다.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긴 하루

테크니와 함께하는 인증사진 촬영도 큰 인기를 끌었다. 임직원들은 카네이션을 받아 들고 테크니 옆에서 함께 너도나도 함께 사진을 찍으며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마지막 순서였던 한 임직원에게는 테크니가 청혼하듯 한쪽 무릎을 꿇고 자이언트 카네이션을 선물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번 이벤트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겼다.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카네이션을 한전기술 인근 꽃집에서 구매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 작은 꽃 한 송이지만 감사의 마음과 지역을 향한 관심까지 함께 전한 셈이다.



가족은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존재지만, 늘 곁에 있기에 가끔 그 소중함의 의미를 잊어버리곤 한다. 이날은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카네이션 한 송이와 짧은 메시지를 통해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던 하루였다. 테크니가 선물한 카네이션에 담긴 마음처럼, 가정의 달 5월의 따뜻한 온기가 한전기술 곳곳에 오래 머무르길 바란다. E&C



테크니 꽃 선물에
심쿵~

테크니 꽃 선물에 부모님 생각 났어요



기획관리본부 미래전략실
최미혜 실장

자식은 나이를 먹어도, 제 자식을 가져도 영원히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 걱정을 먹고 사는 존재인가 봐요. 오늘도 부모님 덕에 딸내미가 이 풍진 세상 속에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엔지니어링솔루션본부 기계기술실
이선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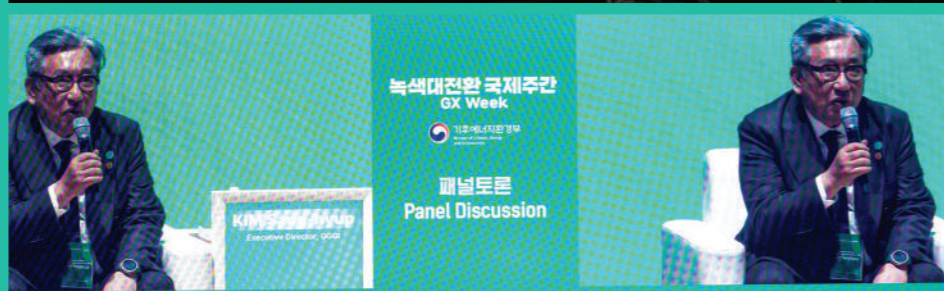
사실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있었는데 테크니가 상기시켜 줘서 고맙고 부모님이 생각나는 하루가 됐어요. 부모님, 저를 이 세상에 빛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엔지니어링솔루션본부 기계기술실
김지현 사원

부모님께 이미 꽃바구니를 해드렸지만 특별한 이벤트 덕에 한 번 더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엄마, 아빠! 날 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효도 많이 할게요 ♥

GX



에너지 전환의 해법을 찾다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라는 인류 공동의 과제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이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여수에서 열린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은 각국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한 국제 협력의 장이었다.

Text 김지연 Photo 임근재



녹색대전환이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산업·경제 구조의 전면 혁신을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녹색대전환 개최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한 각국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김성환 장관을 필두로 마츠오 다케히코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 대사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각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소개했다. 김성환 장관은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을 언급하며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산업의 전기화 및 수소화, 녹색금융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녹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을 향한 글로벌 논의의 장

지난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남 여수시 여수엑스포 일원에서 개최된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이하 국제주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주최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학계, 청년·시민단체 등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녹색대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을 주제로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녹색대전환이란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사회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꿔,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산업·경제 구조의 전면 혁신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는 각계가 녹색대전환을 논의하고, 참여와 교류의 장을 마련해 녹색대전환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제주간 첫날 열린 개최식에서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한 국내외 인사들이 모여 전 세계 녹색대전환의 동향을 공유하고, 녹색대전환을 위한 우리나라의 추진 의지와 범국민 행동 선언을 발표했다. 김성환 장관은 개최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위기를 언급하며, "대한민국도 에너지 분야 혁신과 기술·제조업을 토대로 전 지구적 에너지 전환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통해 녹색대전환의 방향성과 필요성이 제시된 가운데, 국제주간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별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AI 시대 에너지 전략 논의, 세계 기후도시 협력 간담회, 탄소중립 산업정책 포럼 등 다양한 세션이 진행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과 연계된 포럼과 워크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 적응, 자원 조달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 기후변화주간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와 전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이 운영돼 녹색대전환의 의미를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이번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녹색대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세계인이 당면한 필수 과제다. 여수에서 시작된 이 논의가 전 세계로 확산돼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C



귀여움의 천국, 일러스트 코리아

평소 문구류와 귀여운 아이템을 많이 좋아해서 소품샵, 기념품샵을 자주 찾곤 한다. '2026 서울 일러스트 코리아'(이하 일러스트 코리아)에 귀여운 굿즈들이 많이 출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보고 싶었는데, 마침 회사 게시판에서 이번 일러스트 코리아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소식을 보고 빠르게 신청했다.

일러스트 코리아는 일러스트나 캐릭터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일러스트 포스터, 디자인 문구, 창작 굿즈, 아토포이 등 여러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다. 요즘 인기 있는 디자인 분야나 굿즈의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러 체험형 콘텐츠와 일러스트 코리아에서만 특별히 만나 볼 수 있는 한정판 아이템들을 접할 수도 있어 평소 디자인이나 굿즈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전시회라고 할 수 있다. 운 좋게 당첨이 되어 나처럼 귀여운 굿즈를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일정을 잡고 방문했다. 일러스트 코리아에 가기 전에는 막연히 일러스트 분야 작가들의 작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굿즈 종류도 그림이나 엽서, 노트 등이 대부분일 것이라 추측했는데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귀여운 굿즈가 더 많았다. 카드 꾸미기용 스티커, 키링, 핸드메이드 인형, 티코스터, 컵 등 다채로운 굿즈로 구성되어 있어 놀랐다.

귀여운 것이 세상을 구한다

2026 서울 일러스트 코리아

'가봤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찾아간 곳은 디자인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전시회 '일러스트 코리아'다. 평소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환경기술실 황유림 주임이 방문해 귀여움의 바다에 폭 빠졌던 후기를 소개한다.

Text 엔지니어링솔루션본부 환경기술실 황유림 주임



힙하고 즐겁게 만나는 다양한 굿즈

또 하나 놀랐던 점은 일반적인 일러스트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는 점이였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스는 불교 관련 아이템을 판매하는 '붓다를 붓다'였다. 요즘 불교를 힙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러스트 관련 전시회에서까지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해 놀라웠다. 불교 관련 아이템을 귀엽게 제작해서 불교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템이 많았다. 부스 한쪽에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을

Exhibition

필사할 수 있는 노트가 있어서 나도 사경(寫經)해 보았는데, 한자를 쓰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지만 처음 보는 글을 따라 쓰는 재미가 있었다.

일러스트 코리아를 방문하고 느낀 점은 세상에 '금손'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귀여운 인형 키링부터 멋진 도자기 주병까지, 작품 하나하나에 작가들의 센스와 미감이 더해져 부스를 돌아다니는 내내 감탄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전시회에 여성 관객들의 비율이 높았는데 아무래도 귀여운 굿즈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 부서도 여성 직원이 많은 편인데 귀여운 아이템이 있으면 함께 공유하는 분위기라서 부서 분들과 함께 와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귀여운 굿즈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상품들도 꽤 많아서 평소 아끼기 시작한 물건이나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일러스트 코리아가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귀여운 그림이나 소품, 혹은 요즘 유행하는 볼펜, 다구, 데스크테리어 등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방문을 추천한다.



일러스트 코리아 Illustration Korea



일러스트레이션, 캐릭터, 그래픽 디자인, 애니메이션, 웹툰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 작가들의 작품과 북아트, 디자인 문구, 아트토이, 창작 굿즈 등 관련 상품을 한 곳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전문 전시회다.

2021년 수원에서 첫 개최된 후 서울, 대구, 일산,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 총 1,635개사 1,789개 부스가 전시회에 참여하고 약 19만 3천여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매년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신예 작가가 수출 및 유통 세미나 등을 통해 비즈니스 판로를 개척하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동시에 디자인 관련 상품, 미술 재료 등에 취미가 있는 일반 관람객들은 여러 디자인 상품을 한 곳에서 접하기 편하고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어 즐기기도 좋다. 작가 또는 다른 팬들과 직접 만나 서로 교류할 수도 있는 소통의 장이 되어주기도 한다. 특히 아가자기하고 세련된 디자인 관련 상품에 관심 있거나 일반 판매처에서는 볼 수 없는 한정판 아이템에 관심 많은 이들이라면 누구나 관람하기 좋은 전시회다. **E&C**



2026 서울 일러스트 코리아(하반기)



장소 aT센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기간 2026. 9. 4. ~ 9. 6. 10:00~18:00
입장료 10,000원 (중·고등학생 5,000원)
연령 전 연령 관람 가능 (만 14세 미만 보호자 동반)
문의 02-6121-6234



골목 골목
걸은수록
조용은
공주



이맘때의 충남 공주는
'좋다'는 말이 아깝지가 않다.
너무 덥지 않은 날씨에
걷기도 좋고, 계절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한 때라 여행하는
재미가 있다.
봄과 여름 사이, 제민천 따라
공주 골목골목을 걸어볼까.
좋은 날, 좋은 사람과 함께.

Text 김민영 Photo 정우철

이
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골목길 산책

문화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게스트하우스다. 제민천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라 여행객 대부분이 꼭 들르는 곳이다.

분위기 좋은 카페와 시가 있는 곳

골목을 걷다가 조금 쉬어가고 싶다면, 카페로 들어가 보자. 제민천 주변에는 꽤 많은 카페가 있는데 어느 곳을 선택해도 실패가 없다. 고즈넉한 한옥 카페나 제민천이 한눈에 보이는 통유리 창 카페, 푸릇한 정원이 예쁜 카페 등 취향대로 골라서 들어가면 쉬는 시간도 근사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다시 골목 산책에 나서 볼 것. 골목 담벼락을 도화지 삼아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의 모습, 골목에 보물처럼 자리한 귀여운 조형물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발길이 이끄는 대로 골목 산책을 하다 보면, 마음을 토닥이는 나태주 시인의 시가 가득한 '나태주 골목길'에 다다른다.

공주에서 나고 자라 교직 생활을 하고,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시인의 풀꽃문학관이 인근에 문을 열면서 생긴 길이다. 따뜻한 표현이 돋보이는 그의 시를 읽으며 골목을 지나면 나도 모르게 다졌던 마음에 위로가 찾아온다.

나태주 골목길을 지나 다시 처음 그 자리. 아쉬운 마음에 제민천이 흐르는 천변길로 내려가 공주에서의 시간을 돌이켜본다. 그러다 문득 생각나는 시 하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명작 <풀꽃>이다. 시인도 제민천 골목을 걷다가 이 시를 지었으려나. 자세히, 오래 들여다보니 더 사랑스러운 여기서라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주

요즘 공주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고 싶거든 첫 시작은 단연코 제민천 일대로 잡아야 한다. 제민천 일대는 대통교부터 반죽동당간지주, 공주하숙마을 등 역사를 간직한 공주의 원도심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떠났다가 최근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 곳이다.

역사가 깃든 동네가 세월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다. 그 결과 제민천 주변은 자연이 공존하는 산책길이자 쉼터로 재탄생했고, 마을의 가치와 매력을 알아본 젊은 청년들과 예술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제민천 주변 마을은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떠나던 이곳이, 이제는 머물고 싶은 곳이 된 것이다.

골목길 산책의 묘미

제민천의 시작점은 '여기'라고 정해진 곳은 없다. 제민천을 중심으로 반죽교와 대통교가 있고 양 옆으로 있는 마을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만끽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점이 필요하다면, 공주하숙마을이 좋겠다. 고즈넉한 한옥이 일품인 이곳은, 1960-70년대 공주의 하숙



Name 공주산성시장

볼거리 먹거리 가득한



📍 충남 공주시 산성동 190-1

여행지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을 둘러보는 것도 재미라면 재미다. 공주산성시장은 공주에서도 유서 깊은 전통 시장이다. 공주의 오랜 유적지 '공산성'에서 '산성' 글자를 따와 '공주산성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오래된 시장이니만큼 장날이면 시장을 찾은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최근에는 제민천을 찾은 여행객들까지 더해져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여기서는 공주의 특산물 밤으로 만든 떡, 밤국수, 밤막걸리 등을 먹어볼 것. 달콤하고 포슬포슬한 공주 밤의 매력이 색다르게 다가온다.



Name 마롱드공주

공주 밤처럼 달콤한 분위기



📍 충남 공주시 웅진로 131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카페. 공주에서 나고 자란 공주 토박이 남매가 운영하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공주 특산물 밤에 '진심'이다. 밤슈페너와 화이트 밤슈페너가 시그니처 음료이고, 버터떡·밤잼연유, 밤잼밀피유 등 대표 디저트도 밤으로 만들 정도로 말이다. 주인 남매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농사지은 공주 밤으로 여행자들에게 '공주 밤 맛'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크레커나 우유, 커피에 곁들이기 좋은 마롱드공주의 밤잼은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E&C](#)



초여름에 즐기는 꽃놀이

공주 유구 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벚꽃이 졌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말자. 초여름에 피어 무더운 여름 중순까지 피는 꽃, 수국이 있으니. 수국은 보통 봄, 가을에만 즐길 수 있는 꽃놀이를 여름에도 가능하게 해준다. 오히려 꽃이 없을 것 같은 계절에 피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솜사탕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한 수국은 초기에는 흰색이었다가 점차 보라색, 푸른색, 자색으로 바뀌는 특징이 있다. 자라는 땅이 강한 산성일 때는 푸른색, 알칼리성이 강할 때는 붉은색을 띤다고 한다. 이런 특징을 알고 보면 더 재미있고 매력적인 꽃이 수국이다. 공주 유구 색동수국정원은 이처럼 오묘한 매력이 있는 수국을 원 없이 볼 수 있는 곳이다. 중부 지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국정원인 만큼 매해 6월이면 '공주 유구 색동수국정원 꽃 축제'라는 이름으로 수국 축제가 열린다. 축제장 초입부터 만개한 수국이 관람객들을 반기고, 직거래장터,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오감을 자극한다. 수국을 배경으로 다양한 포토존이 마련돼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다.

2026 공주 유구 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2026년 6월 26일~28일
 유구 색동수국정원(충남 공주시 유구읍 창말길 44 유구읍 일원)
 041-840-2406

우리 가족 소중한 추억, 시로 더 특별하게



사진은 오래된 추억을 어제 일처럼 되살려 준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한 5월, AI 기능을 활용해 가족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더욱 특별하게 간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Text 편집실

← 흩어진 사진 정리를 편리하게

가족과 함께한 나들이, 기념일, 일상의 소중한 순간까지 카메라에 추억이 차곡차곡 쌓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진들이 휴대전화 속에 뒤섞여 찾기 어려워지고, 비슷한 사진만 잔뜩 남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AI 기능이 있는 앱을 활용하면 사진을 정리하는 것부터 보정, 포토북 제작까지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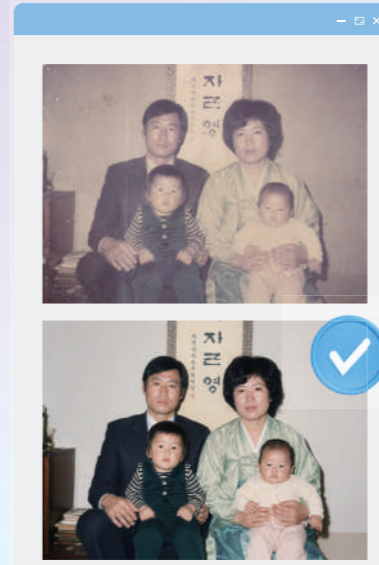
이런 앱 활용하면 좋아요



Google Photos
얼굴 인식으로
가족별 자동 분류,
키워드 검색 가능



Amazon Photos
인물·사물 자동 분류,
무제한 사진 저장
(유료 구독자)



← 오래된 가족사진을 새 것처럼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내보고 싶다면 복원 기능을 활용해 볼 수 있다. 흐릿하거나 화질이 떨어진 사진을 AI 기술로 선명하게 보정해 주기도 하고, 빛바랜 가족사진도 훨씬 또렷한 이미지로 되살릴 수 있다. 정지된 사진에 간단한 움직임을 더해 짧은 영상으로 만드는 기능도 있다. 영상이 남아있지 않은 가족을 새롭게 추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앱 활용하면 좋아요



Remini
흐릿한 사진 선명하게
복원, 얼굴 디테일 강화



MyHeritage
사진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변환 가능



← 특별한 포토북·영상 에세이 만들기

가족사진으로 포토북을 만들고 싶은데 테마나 구성이 고민될 때도 시를 활용하면 좋다. 사진 배치는 다양한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해 주는 앱을 활용하고, 표지 제목이나 사진별 문구가 필요할 때는 AI 추천 기능으로 감성적인 표현을 제안받을 수도 있다. 여러 장의 사진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 경우 동영상 편집 앱의 AI 편집 기능이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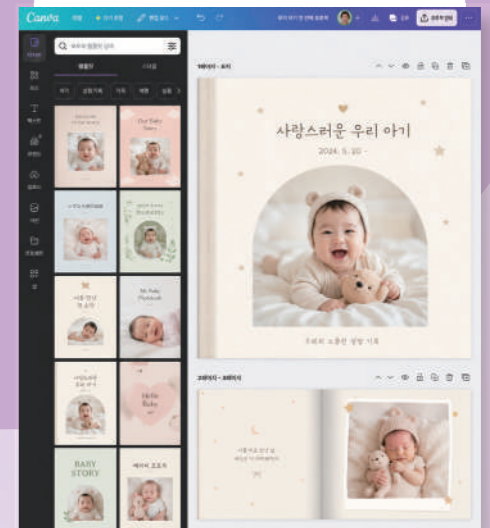
이런 앱 활용하면 좋아요



Canva
포토북 템플릿 제공,
제목·문구 추천



CapCut
사진 여러 장으로
영상 자동 제작



※ 모든 사진은 시를 활용해 생성되었습니다.



환경을 위한 교통 습관

이동을 바꾸면 일상이 달라진다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전쟁 직전 대비 두 배 가까이 치솟았고, 고유가의 직격탄이 고스란히 서민의 교통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요즘이다. 이동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기름값 부담을 줄이고 탄소배출까지 낮출 수 있다. 고유가 시대를 현명하게 헤쳐 나갈 교통 이용법을 알아본다.

Text 편집실



운전 습관 바꾸기

신호 후 출발할 때 천천히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 좋다. 급출발, 급정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연비가 약 7~10% 개선되기 때문. 불필요한 가속과 감속을 줄이고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면 연료 소모도 줄일 수 있다. 타이어는 적정 공기압보다 낮으면 연비가 최대 3% 저하되기에 월 1회 점검하는 것을 권장한다. 차량 무게가 약 45kg 증가하면 연비가 약 1~2% 감소하므로 트렁크의 불필요한 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친환경 이동수단 활용

편도 3~5km 이내라면 자전거로 통근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서울 따릉이, 대전 타슈, 세종 어울링 등 공공자전거를 월정액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1~3km 정도의 애매한 거리를 걸어야 할 때는 헬멧을 착용하고 안전하게 킥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기차는 전력 수요가 낮은 밤 11시~오전 6시에 충전하면 요금도 할인되고 전력망 효율에도 도움이 된다.



대중교통 알뜰하게 이용하기

K-패스 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20~53%를 환급해 준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으로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톡, 네이버지도 앱의 대중교통 모드에서 환승 최소화 경로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장거리는 KTX, SRT 등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서울발 부산행 비행기 대비 탄소를 약 75%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내 탄소발자국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실천 방법	연간 CO ₂ 절감량
자동차 → 대중교통 전환(편도 10km 기준)	약 0.7~1.0톤
에코 드라이빙 실천(운전 습관 바꾸기)	약 0.2~0.3톤
카풀(주 5회, 2인 기준)	약 0.7톤
국내선 비행기 1회 → KTX 대체	약 0.15톤
자전거 통근(주 3회 기준)	약 0.2톤



위의 항목 중 2~3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연간 1~2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소나무 약 100~2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다. 작은 습관 하나가 1년이면 큰 차이를 만든다.

골프장 대신 관악산

청년들의 핫플레이스가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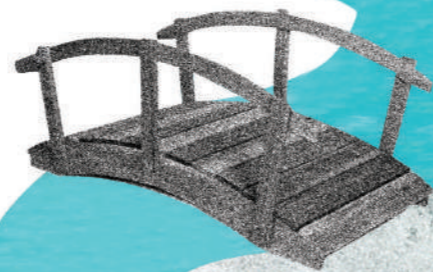


주말 아침 관악산 등산로가 젊은 세대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운이 풀리지 않으면 관악산을 오르라는 한 역술가의 조언이 SNS를 강타하면서부터인데, 단순한 유행처럼 보이는 이 현상에는 사실 젊은 세대의 불안한 현실과 달라진 소비 감각이 투영되어 있다.

Text 편집실

관악산에 가면 운이 풀린다?

“운이 안 풀리면 관악산 연주대에 가라.” 최근 한 방송에서 역술가가 한 말 한마디가 SNS를 타고 들불처럼 퍼지면서 관악산이 젊은 세대의 새로운 성지로 떠올랐다. 연주대는 관악산 정상 부근 해발 629m 암벽 위에 세워진 작은 전각으로, 예로부터 풍수지리적으로 강한 기운이 모이는 자리로 알려진 곳이다. 역술가의 언급 이후 이곳을 직접 찾아 인증샷을 촬영하는 콘텐츠가 유튜브, SNS 등에 넘쳐나기 시작했다. 주말 아침이면 관악산 등산로에 줄을 서서 입장해야 할 만큼 많은 인원으로 북적이는데, 마치 맛집 앞에 대기줄이 길게 늘어진 ‘오픈런’ 풍경을 방불케 한다. 이 열풍의 이면에는 젊은 세대가 처한 현실이 짙게 깔려 있다. 취업난과 치솟는 물가 앞에 노력과 성과 사이의 연결 고리가 끊겼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늘면서 역설적으로 운명이나 기운 같은 비가시적인 요소에 기대는 심리가 커졌다. 더 이상 개인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구조적 불확실성 속에서 ‘나에게 맞는 때’와 ‘흐름’을 읽으려는 욕구가 커진 것이다. 관악산을 오르는 행위에도 막힌 운을 뚫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다.



변화하는 운동 트렌드

등산 열풍은 최근 몇 년간의 운동 트렌드 변화에도 맞물려 있다. 팬데믹 이후 젊은 세대의 운동 문화를 이끈 것은 골프와 테니스, 러닝이었다. 스크린골프와 골프웨어의 인기, 테니스 코트 예약 전쟁, 러닝 크루와 마라톤 열풍은 뉴스에도 등장할 만큼 뜨거웠다. 이 운동들이 인기를 끌면서 각종 장비 구매, 레슨비 등의 금액 부담이 적지 않았다. 반면 등산은 다르다. 운동화 한 켤레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고 어느 동네든 한 시간 내로 닿을 수 있는 산이 많아 접근성도 뛰어나다. 오르막을 오르는 단순한 신체 활동은 디지털 피로감과 과잉 자극에 지친 사람들에게 일종의 해독제처럼 작용한다. 자연 속에서의 정서적 회복, 이른바 ‘산명’ 효과도 젊은 세대에게 강하게 어필한다.

아웃도어업계도 이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기능성보다 스타일을 앞세운 고프 코어(Gorp core) 룩이 대세로 자리 잡고, 주요 브랜드들이 젊은 세대를 겨냥한 한정 컬렉션을 앞다퉈 선보여 등산 장비 관련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 골프와 테니스 용품이 2030 소비자를 사로잡았던 자리를 이제 등산 장비가 채우기 시작한 셈이다. 이처럼 역술가의 말 한마디가 시장의 판도까지 흔들었다는 것은, 결국 소비 트렌드는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것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E&C



부적 키링

전통 부적 모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키링이나 팔찌가 인기다. 귀여우면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반영한 아이템으로 사랑받고 있다.

오뎅 하나씩은 있대요
젊은 등산객 필수템

경량 등산 스틱

중장년 등산객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등산 스틱이 고프 코어 감성과 맞물려 ‘힙한 장비’로 재발견되고, 등산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트레일 러닝화

등산과 러닝의 경계를 허무는 신발로, 고프 코어 룩의 핵심 아이템이다.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아 젊은 등산객 사이에서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E&C NEWS

김태균 사장, 기후부 기자단 초청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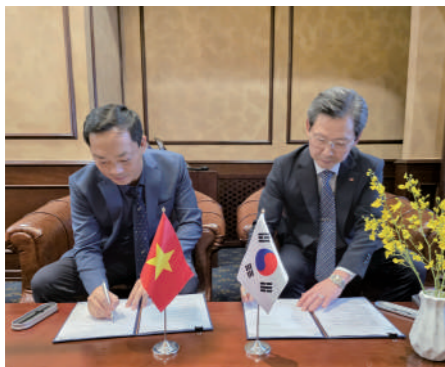
지난 4월 27일 본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경쟁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경영방침을 공개했다. 김태균 사장은 'Engineering Tomorrow's Energy'란 슬로건 아래, 기술 경쟁력 중심 성장 전략을 밝혔다. ▲원전 설계 등 독보적 기술력 기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사업 집중 육성 ▲AX 기반 기술혁신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등이 핵심 내용이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수주한 체코 원전사업 설계 현황을 중심으로 주요사업 성과를 되짚고, 기본설계(FEED) 기반 해상풍력 사업 전략과 해양용 소형모듈원전 'BAND(반디)'의 개발 현황을 함께 소개하며 포트폴리오 확장 의지를 분명히 했다.

비엠텔 그룹과 베트남 SMR 협력 본격화



지난 4월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최대 국영 통신기업인 비엠텔 그룹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개발 및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비엠텔 그룹이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SMR 기반의 전력공급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베트남 전역 14개 데이터센터와 건설 중인 대형 시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SMR 연구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데이터센터 등 글로벌 신규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해 SMR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회사는 이번 협약이 베트남을 전략 시장으로 확보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과 에너지 산업의 컨버전스를 본격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115MW 연안해상풍력 공동개발협약(JDA) 체결



지난 4월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재생에너지사업 투자사인 Minh Thach Group(이하 '민탁')과 115MW 규모의 신규 연안해상풍력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식은 이재명 대통령과 산업통상부 등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와 기업 대표 250여 명이 참석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양사가 맺은 베트남 해상풍력사업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사업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회사의 우수한 엔지니어링 기술력과 민탁의 현지 개발 역량을 결합해 신규 115MW 연안해상풍력 사업의 협력 범위·역할·사업화 단계 권리 등을 구체화했다.

MAY+JUNE

KEPCO ENGINEERING & CONSTRUCTION

공공데이터·데이터기반행정 동시 '우수' 등급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와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해 데이터 중심 경영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공공데이터 분야에서는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 운영 역량을 갖췄음을 증명했다. 이번 성과는 회사의 AI 및 데이터 기술 내재화 전략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는 자체 생성형 LLM(대규모 언어모델) 서비스인 NEXA를 구축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무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AI-데이터 역량 교육을 실시하며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이 조직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실무 중심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를 정착시켰다.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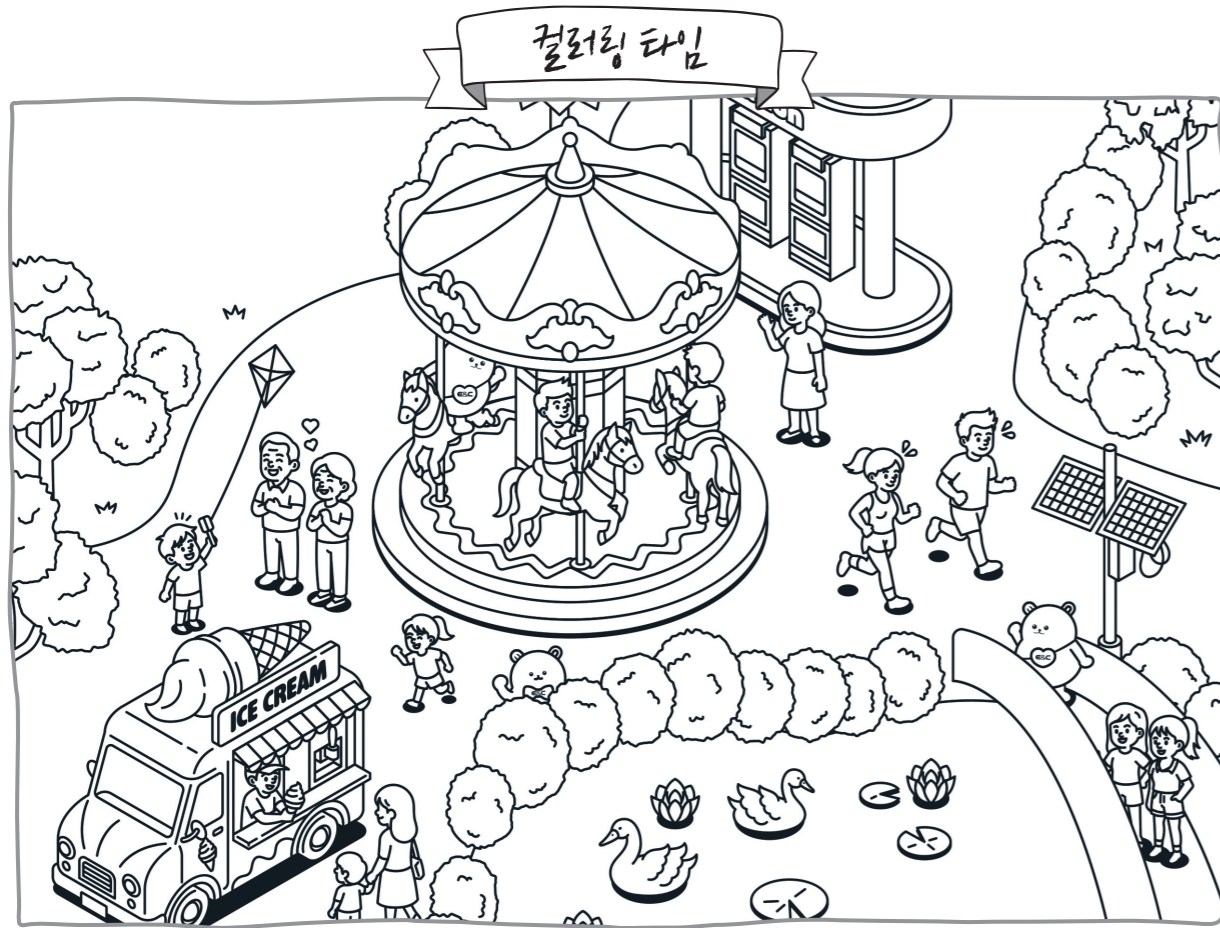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평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회사는 '에너지 산업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동반성장 목표 아래 ▲동반성장 기반 강화 ▲중소기업 성장 Level-Up ▲상생협력 생태계 고도화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회사의 업(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 왔다. 올해 변경되는 정부 동반성장 평가 지침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거래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역의 니즈를 반영한 다각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식목일 맞이 '2026년 탄소중립 실천 나무심기' 시행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4월 1일 김천 본사 사옥 부지에서 '2026년 탄소중립 실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 위기 대응과 경북혁신도시 지역주민이 생활권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나라꽃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임직원과 어린이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회사는 지난 2024년 본사 부지에 3,000그루를 식재한 데 이어, 올해 행사에서는 2,000그루를 추가로 식재해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 녹지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다. 아울러 나무심기 행사의 일환으로 재무처와 율곡동 주민센터, 자연보호 김천시협 의회와 함께 율곡동 일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묘목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총 400개의 묘목을 나눠 줘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한국전력기술 마스코트 '테크니'가 있는 풍경을 예쁘게 색칠한 뒤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완성한 컬러링 도안을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신 분들 중 5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선정작은 7+8월호에 공개 됩니다.) 또 하나의 즐거움! 표지에 숨어 있는 테크니는 모두 몇 마리일까요? 테크니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컬러링 도안도 완성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 보세요.

• 보내실 곳 : kepcoencsabo@gmail.com ※ 성함, 휴대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보내주세요. • 기한 : 2026년 7월 6일까지

3+4월호 당첨작을 소개합니다



김○희(3579)



김○미(3719)



박○탁(1990)



윤○경(2187)



이○아(8004)

한기인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국전력기술 사보 <KEPCO E&C Family>는 임직원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2026년 더 재미있고 풍성해진 사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기 생각

쉽고 간단한 참여로 호별 테마에 대한 한기인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추천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추억의 보물찾기

신나는 팀 대항 보물찾기 게임에 참여해 보세요. 팀워크도 쌓고, 참여만 해도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한기인 노트

한전기술 취업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 나의 취업 노하우를 소개해 주세요. 참여해 주신 신입사원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취미 연구소

동료와 함께 윈데이클래스를 체험해 보는 코너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테크니가 쓴다

한전기술 마스코트 '테크니'가 선물하는 특별한 게릴라 이벤트! 귀여운 테크니랑 인증샷도 찍고 선물도 받아 가세요.



가봤습니다

관광지부터 전시, 공연까지, '핫플'을 직접 체험해 보는 코너입니다. 소중한 가족, 동료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코너별 참여와 관련한 세부 공지는 회사 게시판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한국전력기술 채널에 놀러 오세요~



사보 구독 신청

홍보팀 이메일 sky03tree@kepc0-enc.com